

용주사 외국인 무료 한글교실

“나-면이 아니라 라면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오늘배운거 꼭 다시써주세요”
“여러분들 간식으로 가장 잘 먹는게 뭐지요?” “나-면”
“나-면이 아니라 라면이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라면” “라이면”
“자-아 오늘배운거 꼭 다시써주세요. 새끼손가락 겹고 약속 합니다...”
“색이 손가락을 겹고 약속...” “하-하-하-”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연신 싱글벙글이다. 7월 16일 오전 10시. 화성 용주사 효행교육관에서 들려오는 소리쪽으로 귀를 쫓아 종군 세우니 한글을 배우고 있는 듯 했다. 분명 아이들의 목소리는 아닌데...

알고보니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으로 시집온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교육 시간이었다. 외국인들에게 어렵게만 여겨지는 한글을 가나다라 기초부터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매주 일요일 운영하는 용주사 외국인 무료 한글교실의 수업 풍경이다. 이 프로그램에 출석한 학생은 어림잡아 10여명. 그러나 강사 선생님들과 함께한 한국인 남편들이 있어 강의실은 북적거렸다.

그중에는 아이를 안은 채 분유를 먹이면서 한글을 배우는 여성이 있는가 하면 한국에 온지 한달밖에 안돼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근로자도 있었다. 하지만 한글을 마스터하겠다는 의지로 눈망울은 모두 초롱초롱 빛났다.

베트남 출신이 가장 많고, 스리랑카, 태국, 중국 순이었다. 피부색은 달랐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소개받아 한국으로 와서 화성 지역에 가정을 이루거나 지역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20~30대의 젊은이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 온지 2~4년 정도가 됐다. 그래서 한국말은 귀에 익숙한데 그것을 읽고 쓰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했다.

현재 포항공장에서 일하는 스리랑카 출신의 부세만(30)씨는 “한글은 발음이 어렵고 비슷한 낱말도 많아 스리랑카어보다 정말 배우기가 어렵다”면서도 “그래도 하나를 배우면 금방 공장에서 써먹

을 수 있어 너무 재밌고 즐겁다”고 밝게 웃었다.

한글을 배우면서 낯설기만 하면 대한민국이 이런 조국이 되었다는 베트남 출신의 레티캄 로안(29)씨는 “지난주에 개강해 비록 한 번 밖에 수업을 안 받았지만 한두마디씩 배운 단어나 말이 남편과 얘기할 때 큰 도움이 된다”며 “한글교실이 열리는 매주 일요일이 무척 기다려진다”고 즐거워 했다.

결에서 공부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 김영관(38)씨도 “집에서 한글을 가끔 가르치지만 솔직히 체계적이지 못해 실력이 금방 늘지 않으며, 인근 대학교에 개설된 한글학교는 학기당 1백만원이 넘어 부담이 됐는데 이런 무료 교실이 생겨 용주사측에 감사한다”고 흐뭇해 했다.

지난 7월 9일 문을 연 용주사 외국인 한글교실은 화성 지역에 유독 많은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부녀자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한국 문화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화성시청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것.



한글교실 강사로 나선 동탄중학교 강명숙 교사(사진 왼쪽 두번째)가 스리랑카인 우다야 씨에게 한글 개인 지도를 하고 있다.



용주사 신도인 이종숙 강사가 ‘나-면’ 한글 자음을 가르치고 있다.

베트남 스리랑카 태국 등서 이주한 대학생·교사 11명 강사로 자원봉사
20~30대 노동자·주부 23명 참여 화성市 지원... 교육중에도 접수가능

대학생, 시청 공무원, 학원강사, 교사 등 다양한 직업의 11명 강사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일요일마다 두 시간에 걸쳐 주부반, 하급반, 상급반 등 세 개 반으로 나눠 지도한다. 교재도 외국생활 경험이 풍부하며 현재 서울대에서 한국어지도자 과정을 밟고 있는 정경숙씨와 강사들이 3개월에 걸쳐 철저히 연구해 수준별로 제작했다. 현재는 개강한지 1주일 밖에 안돼 수강생들의 실력을 측정하러나 공통된 교재로 한글 기초교육을 하고 있다.

interview 한글교실 기획 용주사 포교국장 덕본 스님

불교문화 체험 기회도 만들 것

“이런 한글교실은 화성시청의 지원에다 화성지역을 4개군으로 나눠 두개지역은 교회, 한계 지역은 동사무소에서 그리고 나머지 병점 지역은 용주사에서 열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3년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용주사는 사찰로선 화성지역에서 처음이라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 집니다.”



용주사 외국인 한글교실을 총 기획한 포교국장 덕본 스님(사진)은 늦게 출발한 만큼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승부하겠다고 타지역 한글교실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실제로 덕본 스님은 8월부터는 1시간 30분정도만 한글교육을 하고 나머지 30분 정도는 다도 등 전통문화를 교육할 생각이다. 또한 문화프로그램도 처음에는 다도와 같은 실내교육을 위주로 운영하다가 차츰 장소를 외부로 옮겨 지역내 사찰 답사 및 인근 성보박물관 탐방 등으로 자연스럽게 불교문화 프로그램도 체험시킬 복안도 강구중이다.

덕본 스님은 “시에서는 3개월정도의 한글교실 비용만을 지원하지만 용주사는 이와 상관없이 올해연말까지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며 “올해 성과를 봐서 반응이 좋다고 판단되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한글교실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필 기자

교재 3개월 걸쳐 수준별 자체 제작

한글교실 강사로 참여하고 있는 동탄중학교 강명숙(44) 교사는 “어릴적 아버지가 사우 디아리버이 근로자로 일했고, 현재 아들이 인도에 가서 공부하고 있어 외국인들이 현지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소통 문제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알고 있다”며 “본능이나 다름없는 이들의 한국생활

은 정착을 힘들게 하고 특히 이주여성들에게는 자녀교육의 문제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12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한글교실에는 현재 23명이 접수했다. 용주사는 교육이 진행되는 중간에도 계속 접수 받는다. (031)234-0040

화성/글=김주필 기자·사진=박재환 기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효능 은행식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 열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전자기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 HH07236-5004A호

건강에도 최고!
신물로도 최고!
생명의 빛
건강의 氣

- 삼성화재 배상보험가입
- 특허청 실용신안출원
- 전자파 장애실험필

가격 245,000원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칙외선 “침”의 효능/신비로운 은행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북한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 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식 온열복대는 34개의 금강약돌 불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생 화상 없이 뱃속 깊숙이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침투하여 원칙외선 “침”을 맞는 효능으로 속쓰림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얹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허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 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우수한 의료기기입니다.

날씨가 더울수록 배(오장육부)는 차가워 집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인증 은행식 온열복대의 효능

- ※ 오랫동안 참성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弱복
-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아이랫배가 냉하는 분
- ※ 허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 신축조리, 수술후 요양중인 분에게 적극권장
-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문의전화 : 덕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30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